

페르소나의 시간적 공간, 정현자의 사진 만들기

글. 이지언 이화여대 철학박사

예술가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 정현자의 사진도 그녀의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시작 된다. 보다 특별한 존재로서 그녀의 아이들은 즐겁게 그녀의 또 다른 눈인 사진기에 눈을 고정시키고 놀이를 한다. 그녀의 작업에서는 일상의 기록이라던가 아이들의 기념사진을 넘어서는, 즉 작가로서의 치밀함과 견고성을 담보하는 요소들이 내재해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소품이나 도구들은 미리 계획되고 선택되며 이런 소품들은 작가 정현자에 의해 각색되고 매만져진다. 하지만 완벽하게 구성된 연극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공간이 아니라 언뜻언뜻 일상의 흔적과 모습들이 배제되지 않음으로써 현실과 비현실 경계의 중간에서 긴장감을 유지한다.

특히 정현자의 작품은 여백을 편안하게 구성하는 조형적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아이들과 소품, 그리고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공기와도 같은 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천 역시 그녀의 손길에 의해 재단되고 연출된 것이다. 뽀내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공간을 유도하는 것, 정성껏 준비하였지만, 그러한 위트와 재치를 한 폭의 천으로 겸손히 흘려버리는 여유로움이야말로 정현자 작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피아톤으로 제작된 표면은 이미 과거가 된 사진을 따스하고 정감 있게 감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사진을 한다는 것, 그것도 전통적 수작업을 끈기 있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럴듯한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이미지 과잉 시대에 사진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 작가의 열정과 철학을 담아야 한다는 테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녀의 견고성이 보여지는 작품은 <수박가면(Watermelon Mask I, 2004)>, <호랑이 가면(Tiger Mask I, 2004)>이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가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안동의 하회마을에서의 탈을 보았던 기억과 다른 나라의 부족들의 가면을 보고 새로운 미학적인 측면에 이끌리게 된다. 얼굴은 오만가지 상이 있는 신체의 부분으로 세월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수박으로 만든 재미난 가면들로 자신의 얼굴을 새롭게 만들어보는 놀이는 정현자의 작품 속에서 일상을 넘어서는 자신의 독특한 세계를 이루는 출발점을 하나 설정한 것이라 하겠다. 호랑이나 곰이 그려진 티셔츠를 뒤집어쓰고 찍은 그녀의 작품에서 이제 아이들은 어리고 천진난만한 귀여움의 대상이 아니라 서서히 어른이 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인격체로서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는 면모가 드러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담아야 하는 무수히 많은 얼굴의 표정만큼이나 아이들의 얼굴에 씌워진 표정은 가면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현자는 사진의 과거성을-이미 찍혔다는 의미에서-현재성으로 붙들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데리다는 이러한 미래의 시간을 잠시 붙든다는 의미에서 차이와 지연을 합성한 단어인 차연(differance)을 말하는데, 어쩌면 정현자의 사진은 미래에 올 시간들을 조금씩 지연시켜면서 해마다 달라지는 아이들의 얼굴의 차이를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된다. 결국 정지된 사진 안의 시간성은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의 감수성을 담으면서 영원한 순간으로 기억처럼 시간의 흔적으로 저장된다. 어쩌면 이러한 기억이 없다면 사진도 그저 조형적인 하나의 잘 그려진 그림 같을지 모른다. 기억이란 망각을 전제로 하고 있고, 우리는 잊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자신의 기억과 일상성을 소재로 하고 있는 정현자의 작품 속에 녹아있는 날카로운 조형적 감수성은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조형성과 기술을 넘어서는 정감 어린 사진으로 기억된다.